

최고의 정성으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다사랑방문요양센터

수신자 : 내부 결재

제목 : 직원회의 실시 건

2022년 07월 정기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내 용	비 고
일자 / 시간	2022년 07월 28일~29일 / (09:00~18:00)	자율방문
장 소	다사랑방문요양센터	
교육대상자	전 직 원	
강 사	센 터 장 김 연 수 사회복지사 박 금 미	
연수 목적	공지사항 및 주의사항 등	
연수 내용	1. 센터 공지사항 및 주의사항 2.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과 수칙교육 3.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4. 태그 전송방법과 제공기록지 작성방법	

붙임 : 연수자료 끝

연 수 자 료

다 사 랑 방 문 요 양 센 터

기안자 박 은 미

결재자1 김 연 수

협조자

시행 다사랑방문요양센터

접수

우

전화 031-731-1208

팩스 031-629-6818 /

/ 공개

『수급자님과 가족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서비스』

직원회의 참석 확인

*** 서명은 이름 세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일시 : 2022년 07월 28~29일)

순번	성명	참석 확인
1	강양선	강 양 선
2	강영옥	강 영 옥
3	강천례	
4	권진순	
5	권현숙	
6	김경자	
7	김근호	
8	김금자	김 금 자
9	김동순	김 동 순
10	김성자	김 성 자
11	김연례	김 연 례
12	김영순	
13	김옥희	
14	김은정	
15	김종월	김 종 월
16	김춘자	김 춘 자
17	남정순	남 정 순
18	문점례	
19	민병순	민 병 순
20	박동숙	박 동 숙
21	이선옥	
22	박은숙	
23	박춘옥	박 춘 옥
24	박현영	
25	배동순	

순번	성명	참석 확인
26	빈영옥	
27	서경순	
28	신영애	
29	안상순	
30	오애순	오 애 순
31	윤재호	윤 재 호
32	임남숙	
33	장혜숙	
34	정맹심	정 맹 심
35	정옥순	정 옥 순
36	정희숙	정 희 숙
37	조영해	조 영 해
38	조정순	조 정 순
39	조춘심	
40	진미라	
41	차상경	차 상 경
42	차선옥	
43	유선의	
44	김연희	
45	장정애	장 정 애
46	석봉희	석 봉 희
47	추순자	추 순 자
48	김연수	김 연 수
49	박금미	박 금 미
50	박은미	박 은 미

연 수 자 료

(2022년 07월 28일, 29일)

1. 일정 변경시 출근 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지난일정 수정으로 통보를 받았습
니다.) 스마트폰 리더기 출, 퇴근 일정 정확히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센터 공지사항 및 전달사항

- 사무실로 연락주실 때는 반드시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전화 주시시기 바랍니다. (월~금 09:00~18:00)
- 일지나 수급자에 관련된 서류 집에 가져가지 말고, 수급자 댁에 보관 해 주세요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청결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요양쌤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방문해 보면 여기 저기 밀린 먼지들과 하던 곳만 청소하고 계셔서 이곳이 케어가 되고 있는 댁인지 궁금할 정도의 상태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최선의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댁이 본인들께서 개선사항을 마련하시고 조치를 미리 취하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는 안하면 티가 나지만 음식하나 하실 시간 때어서 청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맨손으로 음식먹이지 않기, 가사 일에 너무 치중되어 청소나 정리정돈이 전혀 안되어있는 댁, 보이는 곳만 겨우 청소하는 경우, 여기저기 찌든 때가 많은 댁 등 화장실 청소를 안 하시는 경우, 보호자나 수급자의 동의 없이 아무 때나 방문해서 태그를 찍는 경우, 예의 있게 행동하고 시간약속 잘 지키기)
- 퇴사시 그 달의 급여제공기록지와 상태기록지 모두 작성하셔야 하며, 쓰시던 앞치마는 사무실로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제공기록지와 상태기록지는 작성하여 반드시 말일까지 사무실로 직접 갖다 주셔야 합니다.
- 올해도 건강검진 받아야합니다.

7월 직원교육 과목은 욕창예방 및 호스피스 교육(전직원, 수급자)입니다.
기억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기록지 작성 방법

- 제공기록지(일반요양)

★ 서비스 제공 시간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60분(고정시간)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등 ☒ 항시 해 주세요.

※ 개인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등) ☐ 외출시에만 체크

★ 신체 활동지원 : 제공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개별적 문의)

※ 개인위생(옷갈아입기, 세면 등) ☒ 항시 해 주세요.

※ 몸 씻기 도움 ☒ (주1회 정도 체크) / ※ 식사도움(영양관리 등) ☒ 항시 체크

※ 체위변경 ☒ (1~2등급 수급자만 체크) / ※ 이동도움 ☒ 항시 체크

※ 화장실이용하기 ☒ 항시 체크 해주세요.

★ 인지관리 지원은 인지등급이 있으신 수급자만 해당하며 정서지원은 의식이 있는 수급자는 20분-30분 기재함.

- 제공기록지(인지)

★ 인지활동지원 : 인지만 하시는 선생님만 해당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각각 기존대로 시간 기재 부탁

- 초과근무 요청서 : 2022년 추가근무 시간에 대해 앱에 기재해야 될 사항

특이사항란에 공휴일, 270분이상 18시이후 해당됨. 300분 이상 일 경우 월4회까지만 적용됨 기록지 서명. 필수 받아서 제출

⇒ 구체적으로 서술 (ex. 1.병원동행시 어디가 아파서 갔는지가 들어가야 하며
2.미용실방문, 산책, 외출등을 상세히 기록.)

- 상태변화기록지 : 매주 1회 작성, 매월 1장 필수 제출

- 급여제공기록지 : 센터 제출 필수(1부), 수급자 자택 투명 파일에 비치(1부) 항시 2부작성

-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저희 센터 임금 인상은 시급 500원 입니다

2022년 7월 요양보호사 및 직원, 수급자 교육일지 (욕창예방 관리지침 및 호스피스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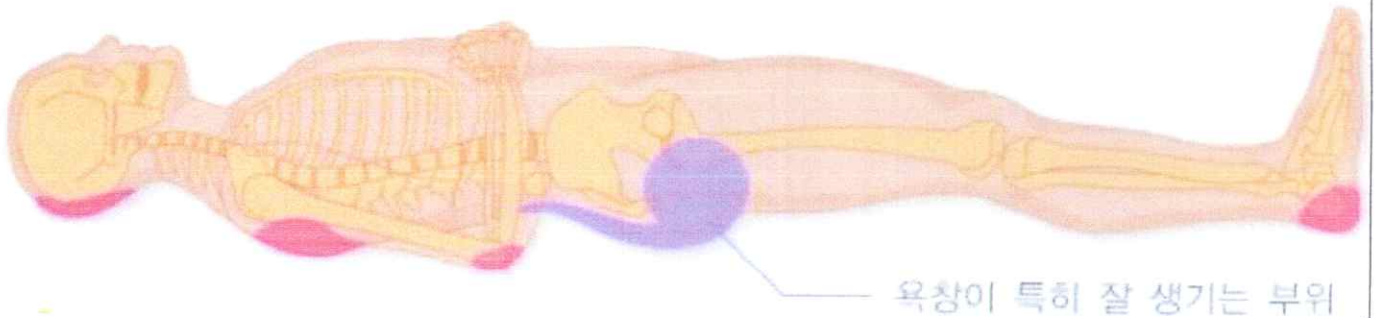
일시		교육담당자 (간호조무사)	
참석자	시설장 :	수급자 :	수급자 :
	간호조무사 :	수급자 :	수급자 :
	요양보호사 :	수급자 :	수급자 :
	요양보호사 :	수급자 :	수급자 :
	수급자 :	수급자 :	수급자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이란?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피부가 눌러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피부가 죽는 것”

욕창이 생긴 곳을 빨리 치료하지 않고 놔두었다가 감염이 심해지면 사망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



욕창이 특히 잘 생기는 부위

*욕창이 생기는 이유는?

- 1) 같은 자세를 장시간 취하고 있을 경우
- 2) 땀과 오줌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오염된 경우
- 3) 영양상태가 나쁘고 전신이 쇠약할 경우나, 탈수증상이 있을 경우
- 4) 마르거나 혹은 비만할 경우
- 5) 당뇨병 등에 의해 저항력이 약화되어 있을 경우
- 6) 신체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압박 받고 있을 경우(깁스, 억제, 고정 장치 등)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 1) 2시간마다 한번씩 몸의 위치를 바꿔드리기(체위변경)



- 2) 옷과 침대 시트는 구겨지지 않게 펴드리기
- 3) 옷과 시트는 잘 마른 것으로 이용하기
- 4) 몸이 땀을 흘릴 때는 팔, 다리, 등을 톡톡 두드려주기
- 5) 스트레칭 해드리기
- 6) 목욕으로 청결을 유지해드리기
- 7) 침상의 먼지나 음식찌꺼기 제거에 신경써드리기
- 8)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드셔야하고 단백질과 비타민의 섭취가 중요

호스피스 교육

1. 호스피스의 정의

-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
-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

- 즉, 호스피스란?

임종자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희망 속에서 가능한 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의미함.

2. 호스피스의 이해

- 죽음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 죽음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죽음 자체도 삶의 한 부분으로서 간주하고 임종자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호스피스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3. 호스피스의 철학

말기환자와 임종대상자, 그들의 가족을 돌보며 지지한다.

- 남은 생을 가능한 편안하게 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준다,
-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다.
- 호스피스는 삶을 연상하거나 단축시키지 않는다.
-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 인종, 국적, 종교,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봉사해야 한다.

4. 호스피스의 유형

[1] 가정형

- 호스피스 팀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는 형태
- 가장 많이 이용됨.
- 장점 : 환자에게 편안한 환경 제동
- 단점 : 가족 부담감이 크다.

[2] 병원 입원형

-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호스피스 간호를 받는 유형
- 산재형 : 병원내 호스피스팀이 구성되어 간호를 수행하는 유형

- 병동형 : 호스피스 환자만을 모아서 호스피스 병동을 따로 운영하는 유형

[3] 독립시설형

- 병원에 입원하기도 어렵고, 가정에 있을 수도 없는 환자를 위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호스피스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4] 공공 보건 의료형

- 보건소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호스피스를 운영하면서 해당지역의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재가 암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

5. 호스피스의 목적

■ 목적

- 호스피스는 대상자에게 진심을 알리는 것이다.
- 남아 있는 삶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스러운 증상을 완화시키며 질적 간호를 향상시키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안위의 도모를 최대한으로 하는데 있다.
- 임종자를 지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
- 병원 간호와 더불어 임종자의 가정간호를 통해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지지와 함께 임종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 사별가족 간호를 제공한다.
- 환자와 가족, 호스피스 요원, 지역사회 요원들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제공한다.

6. 임종 요양보호

1) 대상자 요양보호

- 임종이 가까워진 대상자를 보조할 때,
요양보호사는 침상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침 등의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질식을 예방함.

[1] 심리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들이 임종 시 겪는 심리적, 정서적인 변화와 더불어 원하는 것을 알고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 대상자가 임종 시 겪는 심리/ 정서적 변화를 지원하면서 요양보호사는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와 함께 있어 주면서 계속 함께 있을 것임을 알림으로써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다.

- ② 고통이 없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관심을 가져준다.
- ④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 ⑤ 임종 대상자를 존중해 준다.
- ⑥ 대상자가 평소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종교 의식이 있는지 알아본다.
- ⑦ 책임을 다 한다.
- ⑧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준다.

[2] 임종 요양보호

■ 준비물품

수의나 깨끗한 시트, 곡반, 비누와 물, 세면수건, 패드, 장갑 등

■ 방법

- ① 모든 사후 처리 과정은 경건하게 수행한다.
- ②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조용히 일을 수행한다.
- ③ 손을 씻고 장갑을 낀다.
- ④ 대상자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준다.
- ⑤ 사후 강직은 사망 후 2~4시간 후부터 시작되어 약96시간 지속되므로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임종 대상자의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 ⑥ 튜브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간호사 등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 ⑦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⑧ 대상자의 눈을 감기고,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솜을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 놓는다.
- ⑨ 대상자의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용기에 둘지를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한다.
- ⑩ 필요시 대상자의 몸을 씻는데, 대상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므로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 주고, 깨끗한 시트로 덮어두되, 대상자의 얼굴을 덮지 않게 어깨까지 덮는다.
- ⑪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한다.
- ⑫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⑬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 두고 목록을 만든다.
- ⑭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2] 가족요양보호

[1] 가족의 임종에 대한 정상적 / 비정상적 반응

① 가족의 임종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

- ㉠ 목이 조이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
- ㉡ 속이 텅 빈 것 처럼 느껴지고 식욕을 잃는다.
- ㉢ 때때로 죄의식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느낀다.

- ㉔ 안절부절하고, 일을 찾아 활동을 하고자 하지만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하게 된다.
아무런 이유없이 이 곳 저곳을 배회하기도 하며 무슨 일을 시작해 놓고는 끝내지를 못하거나
아예 잊어버리기도 한다.
- ㉕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임종 대상자가 실내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느끼며, 목소리가 들리고 또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어디엔가 있다는 느낌과 기대가 들어 자꾸 임종 대상자를 찾는 행동을 한다.
- ㉖ 불면증에 시달리며, 임종 대상자의 꿈을 자주 꾸다.
- ㉗ 임종 대상자의 행동이나 버릇을 흉내 낸다.
- ㉘ 임종 대상자의 과거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 ㉙ 임종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우연이 일어났던 일이나, 좀 더 해 주지 못했던 일에 대해 죄책감
이나 분노를 느낀다.
- ㉚ 임종 대상자가 유가족을 남겨두고 떠난 것에 대해 격분한다.
- ㉛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 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㉝ 임종 대상자에 관계된 일이나 죽음에 관한 경험을 자꾸 기억하고 되풀이해서 말하려한다.
- ㉞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크게 변한다.
- ㉟ 뜻하지 않은 때에 온다.

② 가족의 임종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

- ㉑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 ㉒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으며 무덤참배도 하지 않는다.
- ㉓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
- ㉔ 저 세상에서 임종 대상자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자살을 기도한다.
- ㉕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슬픔에 잠겨있다.
- ㉖ 임종 대상자에 대하여 지나친 집착을 가진다.
- ㉗ 임종에 대하여 지나친 죄책감을 사로잡힌다.
- ㉘ 대인관계를 회피한다.

[2] 임종 대상자의 가족 요양보호

① 요양보호사가 지녀할 자세

- ㉑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
- ㉒ 마음을 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 ㉓ 일방적인 자세를 버리고 임종 대상자 또는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에 주의를 집중한다.
- 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 ㉕ 임종 대상자 및 가족 중심으로 생각한다.

- ① 임종 대상자 및 가족의 반응을 주의깊게 살핀다.
- ②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임종 대상자의 가족 요양보호

a. 돕는 자로서 도움을 제공한다.

- 임종 대상자 및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도움을 받기 싫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도움이 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다.

b.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있어준다.

- 단지, 요양보호사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가족에게는 도움이 된다.
- 임종 대상자의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한다.
-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이해하는 태도로 가족의 곁에 함께 있도록 한다.
- 가족의 곁에 있을 때 요양보호사는 그들을 이해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 참석하지 않는다.

c.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을 지지한다.

- 안아주거나 손을 잡는 등의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하여 가족을 지지한다.
이러한 접촉은 임종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접촉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옆에 함께 있어주며 지지해 준다.
- 가족이 대상자에게 한 일에 대해 “참 잘했어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지한다.
- 경청한다.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청 등은 정서적으로 큰 지지가 된다.
- 격려하되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 하지 마세요.”와 같은 피상적인 표현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도록 한다.
- “힘드시지요?”, “수고 많으셨어요.”와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가족을 위로해 준다.

d.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도록 돕는다.
- 가족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이 슬픔에 눈물을 흘리거나 힘들어 할 때, 외면하지 않고 휴지를 주는 등의 행동을 통해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e. 중립의 자세를 취한다.

- 요양보호사는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의 자세를 유지한다.

7. 호스피스 간호

[1] 호스피스 대상자 선정기준

- 암으로 진단받은 후 의학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의사로부터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진단을 받은 자.
- 의사의 동의나 의뢰가 있는 경우.
- 대상자나 가족이 증상완화를 위한 비 치료적인 간호를 받기로 결정한 경우.
- 가족이나 친지가 없고 호스피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경우.
-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가정은 임종을 맞는 가장 좋은 장소

[2] 대상자를 가정으로 옮기는 데 유의할 점

-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도와줄 지지단체가 있어야 한다.
- 시간제로 이용 가능한 전문요원이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한다.
- 가족과 영양보호사는 필요한 간호기술을 배워야 한다.
- 죽음과 사후 처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임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환경

- 신선한 공기와 충분한 일광을 제공한다.
- 욕실과 가까운 곳이 좋다.
- 대상자가 좋아하는 그림, 사진, 종교적 상징물을 대상자가 볼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배열한다.
- 깨끗한 옷으로 용모를 단정하게 해주고 주변에 꽃을 꽂아둔다.
- 바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병실 기분이 들게 하는 물품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
-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문병 오는 방문객을 허락한다.
- 냄새를 관리하기 위해 아로마 요법을 활용한다.

